

음모론의 특성과 한계 : 시론적 분석*

곽인신 동아대학교

논문요약

오늘날 한국 정치의 키워드라고 하면 단연 ‘음모론’이란 언어이다. 어느 사건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발현하게 되면 어김없이 언론, 뉴스, 개인 방송, SNS를 통해 ‘음모론’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천안함 음모론’, ‘총선 음모론’, ‘코로나 음모론’은 물론이거니와, ‘美 대선 음모론’, ‘9.11 음모론’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음모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음모론’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이고, 편집증적인 환자 취급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음모론’이 어떻게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음모론’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모와 관련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나, 일상생활에 듣고 보는 정치적 비밀, 음모로 포장된 진실들을 음모론으로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음모론은 개인의 편협한 사고로 사회를 왜곡해서 보는 관점이지만, 음모론이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의식을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특징을 7가지로 분석하였다. 반면 음모론은 검증은 가능하지만, 과학과 실험에 의해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음모론의 한계가 있다고 칼 포퍼의 논의를 빌려 음모론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지식으로서의 음모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이론으로서의 학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정치학, 음모, 음모론, 편집증, 칼 포퍼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 논문 「음모문화와 신뢰문화에 관한 비교연구(2007)」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I. 서론

최근 한국 정치를 다룬 기존의 레거시 언론(뉴스, 신문, 방송), 뉴 매체로서의 개인방송(유튜브), 그리고 SNS를 보면, ‘음모론’이라는 언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는 과거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고,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넌 미국에서도 ‘대선 음모론’, ‘코로나 음모론’ 등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또한 우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어떤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전부 ‘음모론’으로 치부하여, 본래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볼 수 있다.

소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대형 사건에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 이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모종의 비밀이나, 그러한 집단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것을 음모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의 퇴임 연설에서 미국은 군·산 복합체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언변을 하였다.¹⁾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 전부터 음모의 여론 의혹에 의해 질타를 받다가 워터게이트 사건²⁾ 이후로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³⁾이

1) 지금은 군·산·미디어 복합체가 미국 사회의 상층부 엘리트로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1972년 6월, 미국 대통령 닉슨(Richard Nixon)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 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닉슨 정권의 선거 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드러났으며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3) 미국에서 1966년에 제정한 정보 자유법은 시민 누구나 연방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문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아홉 개의 국방·외교 관련 사항은 정부 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예외 조항이 많았고, 또한 정부 관료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자, 미국 의회는 1974년 10월에 이 법을 대폭 개정하여 예외 조항의 범위를 줄이는 동시에 동법의 운영상의 절차도 개선하여, 당시 포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개정되었으며, 국가의 기밀문서 등을 통해 예전의 갖가지 음모들의 폭로되고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까지 로또 음모론, 황우석 사태의 음모론, 정당의 정치적 음모, IMF 음모론, 9.11테러 음모론 등 시민들의 눈과 마음에서 정치가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음모론이 유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위기의 사회에 직면하고 있다는 징조이며, 이제 음모론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의 사회적 임무는 우리가 어떠한 세계에 살고 있는지,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 해석을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각적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음모론이 무엇이며, 그 특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음모론에 관련하여 연구가 미진하며, 사회과학 내부에서도 학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음모론은 사회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일반적 과학 법칙이 아닌 우연에 의한 인과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음모론에 학문적인 성격은 희박하다고 하여, 음모론을 부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음모론으로 야기된 사회적 현상들은 일상생활에서 언론이나, 교육, 인간관계에 까지 파고들고 있다. 따라서 음모론은 부정할 수 있어도 그러한 현상인 음모론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음모론이 왜 발생하였고,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관한 것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기서 학문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통과 시켜 1975년 2월에 시행됐다.

- 4) 정치적 술수를 위해 음모를 가장한 음모들과 허황된 음모에 대해 시민들은 정치에 불신을 가지게 되며, 정치에 무관심화 된다. 즉 이것은 오웰이 말한 정치적 언어의 작용으로 거짓말을 건전한 진실인 것처럼 만들고, 살인자를 존경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순전히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고체처럼 보이도록 고안되었다(사이드 1996, 67). 이러한 '음모'라는 언어로 낙인찍히고 하나의 가십(Gossip)으로 전락되는 것은 '음모'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로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저널리즘 수준에서 다뤄지고, 학문적인 고상한 세계에선 배제하는 의식적·무의식적인 권력의 효과가 작동하였다고 판단된다.

필요하다. 음모 또는 음모론이라는 성격 자체가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논의 의미, 모든 것이 음모로 인해 사회가 움직여나간다는 것은 이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화시켜 잘못된 사회현상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학문의 성격상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학문을 하나의 파편화된 지식을 종합하여, 일련의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음모라는 파편화된 지식들을 종합하여 지식 체계화하여 정치의 속성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모와 관련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나, 일상생활에 듣고 보는 정치적 비밀, 음모로 포장된 진실들을 음모론으로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음모론이 무엇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음모론의 특징과 한계점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음모론의 개념과 편집증

1. 음모와 음모론

1) 음모

흔히 음모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비밀을 꾸미는 행동이나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보이지 않는 지배 세력의 음모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진실 되지 못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회의 불신이 만연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음모라고 말한다. 음모(Conspiracy)라는 표현은 라틴어 ‘conspirare’에서 파생된 것이며, 문자상으로는 ‘함께 숨 쉰다’, 또는 ‘조화롭게 행동하거나 생각한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사악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마스 2003, 12-13). 이러한 음모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몰래 좋지 못한 일을 꾸밈, 또는 그 꾸민 일이라 정의한다(<http://krdic.daum.net>). 또 다른 사전적 의미로는 ‘비밀리에 함께 계획하다’, ‘불법적인 또는 사악한 행동을 저지르다’라는 의

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비밀리에 계획 또는 모의하다’라는 뜻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마스 2003, 13).

음모는 음모론, 음모설 등으로 저널리즘의 수준으로 인터넷 웹상으로나,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의 음모론은 영국의 사회정책연구자인 히긴스(Joan Higgins)가 1980년대 그녀의 논문에서 사회정책에 있어서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혹은 음모론(Conspiracy Theory)이라고 명명한 이론에서 통용되었다. 하지만 사회정책 발달에 대한 이론을 매우 빈약하게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김연명, 1988).

2) 음모론

음모론이란 음모와 관련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나, 일상생활에 듣고 보는 정치적 비밀, 음모로 포장된 거짓된 진실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음모(陰謀 : Conspiracy)라는 현상을 음모론(Conspiracy Theory), 음모 담론(Conspiracy Discourse)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등으로 언론, 학술 문헌에서 지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선 이러한 것을 하나로 포괄하여 음모론이라고 지칭한다. 모든 사회적 갈등, 불신, 정치적 비밀스러운 행위 등을 음모론이라 하여 확대 해석의 일반화의 오류에 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음모론을 분석해보면 음모라는 그림자에 정치적인 속성과 권력과 학문, 미디어, 자본 등의 연결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기제가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모든 양상의 문화는 대다수의 사건들이 은폐됨으로써 시작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음모론은 17세기부터 있어왔으나, 196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들어와서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과 제리 폴웰(Jerry Falwell)과 같은 거물급 목사들에 의해 재천명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김덕호·김연진 2001, 167-168).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피터 나이트(Peter Knight)는 “음모론은 1960년을 전후하여 미국 사회에서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1963년 존 케네디(J. F. Kennedy) 대통령의 암살에 뒤이어

음모론은 정치적이고, 문화적 삶의 규칙적인 특징이 되었다”라고 말한다(Knight 2000, 2).

음모론이란 이런저런 사회적 현상과 사건들을 소수의 특정 집단의 음모(Conspiracy) 결과로 돌리는 태도이다. 유럽의 모든 혁명과 정변은 모조리 비밀 결사 프리메이슨(Freemason)의 음모로 돌린다. 그리고 국제 정치 정세의 변화의 모든 원인을 시온 의정서(Zion Protocol)에 거론되어 있는 유태인의 세계적 음모로 돌리는 따위의 것들이 고전적인 예이다. 가깝게는 케네디의 암살에서 소련의 몰락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음모로 이야기하는 것이다(프레시안 2003/03/27).

이러한 음모의 배후세력에 관해 영국의 존경받는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스레일리(Benjamin Disraeli)는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배후세력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은 “어딘가에 철저히 조직적이고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나 눈을 번뜩이며 감시하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은 완전하고 어디에나 손길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나쁘게 평할 때는 큰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로버트슨 1997, 96)라고 하여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로버트슨(Pat Robertson)은 이러한 가시적인 배후조직을 프랫 하우스라고 하는 뉴욕시의 파크가와 68가가 만나는 자리에 조직된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이라 말하며, 여기로부터 수많은 권력의 중심지로 세력을 뻗치고 있다고 말한다.⁵⁾

음모론이 과거에도 있어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오늘날같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모라는 것은 정치엘리트나 기관의 비밀유지가 관건이고, 그 정보를 접할 기회가 과거에는 통신기술이 오늘날에 비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치가나 기관의 비밀이 중요하였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지속적이며 잘 정비된 통치의 비결은 결정적으로 비밀 유지에 있으며, 비밀 유

5) 로버트슨은 CFR을 지목하는데 이것은 너무 단정적이며, 이 뿐 아니라 음모조직이라 불리는 많은 비밀조직이 여럿이 존재한다.

지를 요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권력과 통치 기관의 등급 역시 높아진다. 비밀과 금기는 통제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모든 지배자에게 사랑받는 도구이다”라 설파하였다.

3) 한국에서 음모론 논의

한편 한국에서 음모론에 관해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전상진(2014)은 음모론을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을 ‘권력 유지나 획득을 목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집합행동’인 음모에서 ‘찾고 탐구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라 정의한다. 그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음모론을 베버의 신정론의 논의와 비교를 하면서, 책임 윤리를 통해 음모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모론의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효과와 우리 사회를 설명해주는 “쓸모”, 바꿔 말하면, 사회를 보는 쓸모 있는 프레임을 음모론을 통해 읽을 수 있기에, 비판이론으로서의 음모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정태일(2017)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한 국가나 정부의 관점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불신되는 현상을 음모론이라 정의한다. 그는 음모론은 어느 사회에서 국가나 정부에 대한 다양한 불신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자 저항의 일환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음모론이 정치적인 목적을 지닐 때, 정치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세력의 견제용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권력투쟁의 장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음모를 주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사례를 통해 음모론을 분석하였다.

4) 음모론적 역사관과 불안의 정치

누가 음모론을 주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영국의 심리학자인 페트릭 레만(Patrick Leman) 박사가 분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에는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 기업의 세계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영국 본머스에서 열린 영국 심리학회 연례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더 많이 분리돼 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권력기관

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점점 무력해진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레만 박사는 64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국가 원수가 암살로 사망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설문을 하였다. 그 결과 국가원수의 사망 등 중요한 사안일수록 설문자들이 음모론을 포함한 주요 설명수단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3/08/04). 이 결과는 각 개인들의 심리적인 요인과 포퓰리스트들의 행하는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대중들의 독재적인 지도자와의 동일화로써 구원을 받고 싶다고 생각할 경우 음모론적인 역사관(The Conspiracy Theory in History)이 큰 역할을 한다고 프란츠 노이만(Franz Neumann)은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커다란 변혁에 의해서 생겨난 증오나 원한이나 불안의 원인 등이 모두 어떤 특정한 개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가된다. 이러한 개인들은 악마적인 음모가로서 규탄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리하여 불안에 기인된 역행적 대중운동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어떤 ‘적’이 만들어져 사회적 불행과 비참한 사태의 일체가 이 적 때문이라고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적으로는 때로는 유대인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그때의 정책 변화에 따라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역사를 일부 사람의 음모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극찬 2000, 405-406).

한편, 음모론적 역사관은 윌리엄 애플먼 윌리엄스(William Appleman Williams) 위스콘신 대학교수가 1958년 주창한 수정주의 이론과 비슷한 관점이다. 소위 매디슨 학파라고 불리는 수정주의 학파는 냉전의 원인이 소련의 팽창주의로 보는 전통주의 관점과는 달리 미국의 팽창주의에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거나, 6.25 전쟁이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남침 유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6.25 전쟁을 남한과 북한의 내전으로 보는 브루스 커밍스도 대표적인 수정주의 계열 학자로 꼽힌다(뉴데일리 2013/04/15).

다음으로 포퓰리스트들은 음모를 ‘불안의 정치’를 위해 즐겨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라 말한다. 국가와 그 주민들을 불안케 만드는 모든 위

협은 모종의 음모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역사적, 정치적 사건과 과정들을 해석한다. 음모론은 항상 불가사의한 위협에 대한 불안과 결부되어 있는데 종종 위협으로 느껴지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인격화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반유태주의 음모론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유태인은 근대의 모순적인 현상들 배후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이 힘을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불가사의하며 엄청나게 거대하고 통제하기 힘든 것으로 느껴진다. 이처럼 반유태주의 음모론은 자본주의적 근대화과정에서 야기하는 모순적인 현상들과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급격한 변화들을 마치 유태인들이 세계음모를 통해 행사하는 불가사의한 힘의 발현이라고 상상함으로써 유태인들을 불길한 힘의 원천으로 신비화한다(주정립 2006, 55-56).

2. 편집증(Paranoia)

음모론의 심리적 기제는 편집증(파라노이아, Paranoia)이다.⁶⁾ 편집증에 대해서 고전적 이론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노먼 카메론(Norman Cameron)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프로이트는 편집증이 억압된 동성애와 관련된 것으로 믿었다. 편집증은 최소한 남성에게 있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동성애를 느끼고, 그것이 무의식 속에 보존되다가 성인기의 정서적 위기상황에서 재현되면, 투사⁷⁾에 의해 의심이나 망상으로 전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의식에 이르기 전에 동성애적 근원을 위장하기 위해 일종의 변환을 거친다는 것이다. 편집

6) 편집증에 대한 심리 기제에 대해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늑대인간』 전집 11권 342-365를 참조하고, 편집증상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전집 7권 355-357 쪽을 참조하기 바람(김영찬 2004, 360).

7)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귀인 하는 것.

증 환자들은 자신의 무력감을 타인으로부터의 통제와 관련짓는다(이훈진·원호택 1997, 332).

이에 반해 카메론은 성격적 소인을 중심으로 편집증의 발달과정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편집증의 성격적 배경은 독선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폐쇄적, 흑백 논리적 사고를 가진 성격으로, 이런 사람은 친밀한 관계 형성이 제한되고 근본적으로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과민하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적대적이고 성애적인 충동의 방출과 관련된 자극이나 사회적 고립, 안정감이나 만족의 상실 등의 촉박요인에 직면하면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된다. 그리고 망상적 입장에 근거해 사회적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점차 부정적 상태를 환경 내에 있는 타인들의 사소하고 무관한 행동에 귀인하기 시작한다. 결국 위험한 타인들을 음모를 가진 조직체, 즉 모의 공동체(Pseudo-Community)로 생각하게 된다. 이 모의 공동체는 자신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충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며 자신의 불안에 대한 설명이 된다. 따라서 실제 사건은 왜곡되고, 사소한 사건에 중요성이 부여되게 된다(이훈진·원호택 1997, 333).

음모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음모론적 편집증의 공통된 특징은 그러한 사건의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조종하는 큰 타자, 즉 ‘타자의 타자(an Other of the Order)’라는 존재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 타자의 타자란 이 타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즉 그것의 농담이나 꿈에서처럼, 이야기하는 주체의 의식적인 의도를 넘어서는 무의식적인 우연에 의해 의미의 효과를 산출하는 곳에서 타자를 막후 조종하는 숨겨진 주체다(지젝 1995, 42-43). 이렇게 편집증은 현실을 대체하는 상징적 허구를 구축하고, 그것을 다시 바깥 세계에 투사한다. 음모를 가진 조직체가 현실을 대체하는 하나의 상징적 허구이고, 이 상징적 허구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논이다.

토마스 핀천(Thomas Pynchon)은 편집증을 인간이 그의 공적, 사적 생활에 침입하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제어할 수 없어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의미나 질서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갖는 집착 정도의 마음 상태라 하였다(Knight 2001). 이러한 편집증을 가진 편집증자는 우연한 현상 속에서도 어떤 패턴이나 악의적인 존재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다시 말해, 단지 우연적일 뿐인 현실의 디테일을 그가 구축한 상징적 허구의 내러티브가 진실임을 입증해주는 필연적인 증거로 굳게 믿어버리는 것이다(김영찬, 366). 하지만 이러한 편집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조지프 슈페터(Joseph Schumpeter)는 “오직 편집증 심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글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호프스테터(Richard Hofstadter, 1966)는 음모론을 편집증적 스타일이라 지칭하여, 편집증은 임상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신병이 아니다. 이 편집증적 스타일은 ‘세계를 보는 것과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 하였다.

Ⅲ. 음모론의 특성

음모론의 특성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음모론의 특성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급진적이고, 망상적인 요소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음모론을 독버섯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원래 비밀스럽고 음습한 장소에서 피어나지만, 활짝 필 때는 화려하고 선정적인 태깅로 우리를 유혹하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윤평중 2004, 120).

첫째, 음모론은 정치적 이념의 구분을 필요치 않는다. 현대 정치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계급에 기반을 두는 형태이다. 그래서 정당의 구분과 지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데 음모론은 좌·우, 진보·보수의 이념을 가로지르거나 이념의 구분을 해체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가 알기에 음모론은 우파의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좌파의 음모도 역사상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 이는

러시아 혁명으로 설명 가능하다. 러시아 혁명은 1917년 볼셰비키당(Bolsheviki) 이 혁명으로 집권하여 지구상 최초로 공산국가 이념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 동유럽 등 20C의 대부분을 냉전(Cold War)이란 이름으로 좌·우 이념적 대결을 펼치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었다. 마침내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이념의 종결은 끝나고 사회주의혁명론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이를 ‘역사의 종언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칭하기도 한다.⁸⁾ 그런데 여기서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면 레닌이 집권하기에는 유태자본, 즉 최상의 엘리트들의 자금지원을 등에 업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수혜자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막으로 가려진 배후의 사람들이다. 즉 이 지원이 없었다면 역사상 사회주의 국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레닌(Vladimir Lenin)을 포함하여 그 당시 핵심 소련 인물 중 다수가 유태인이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의 특혜는 자본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계층이지만,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반하는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란 점이다. 즉 그들에 있어서는 좌·우 라는 이념적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좌·우 대립, 진보·보수라는 분열된 양상으로 서로의 연대나 합의가 아닌 분열, 불신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하다면 서로의 이념이 다름에도 대립되는 양상은 그들에 있어서는 실이 아니라 득이 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2004년 대선에서 두 진영의 후보는 케리(John Kerry)와 부시(George Bush)인데, 같은 해골종단 출신에 두 사람 모두 미국 사회의 상층부인 ‘WASP’이다.⁹⁾ 일루미나티라 불리는 상위엘

8)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사회가 오는 것은 더 이상 이념적 대결은 없으며 계속 자본주의의 승리 내지는 완성에 이르러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역사의 진전은 더 이상 없다는 뜻으로 역사의 종언이라고 20C의 냉전 해체의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이때 후쿠야마의 역사란, 하나의 정해진 목적을 향해 진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역사를 지칭한다.

9) WASP(와스프 : White Anglo-Saxon Protestant)란 미국의 다수파인 백인 앵글로 색슨계 미국인 신교도를 가리킴. 이와 관련하여 와스프(미치오 1999) 참조.

리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더 일을 잘 수행하는 하수인을 대통령으로 정할 것이다.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어떤 이념을 가지는 결과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1992년 부시(부시 아버지, 41대 대통령)가 낙선하고 클린턴(Bill Clinton)이 집권한 8년 동안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어낸 그는 민주당 출신이다. 하지만 부시가 집권한 재임 기간보다 전쟁을 더 많이 일으켰고, 내전 등 우리가 언론에 접하지 않은 크고 작은 전쟁을 더 많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한다. 또한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도 탄핵이 부결된 것은 과연 경제 황금기와 또한 무엇인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을 전쟁만 일삼고 경제는 돌보지 않는다 한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전쟁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따라서 음모론에 있어서 좌·우의 이념은 해체되어 버리고 그들의 목표와 목적에 맞으면 이념은 그들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음모론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든 사회현상이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작되고 계획되었다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사회과학의 문제의식과 동일한 측면이다. 흔히 우리는 상품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상품에 의해 선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조와 같이 음모론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세계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사건들이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세력에 의해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다.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오로지 계획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라고 말하였다(이리유카바 최 1999).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진주만 침공을 보더라도 그 의미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음모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는 자연발생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나, 권력에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는 출발점이 음모론에 있다.

셋째, 음모론은 세계사의 이면의 역사를 파헤치는 기능을 한다. 학문

적으로 표현하면, 모더니즘의 역사관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관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역사교육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는 국사책과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한 세계사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로 역사관과 세계관의 팩트(Fact)를 얻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론 역사책에선 역사가의 주관적 관점이 들어가며,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의미와 시각도 조금씩 변하게 된다. 유명한 역사학자인 카(E. H. 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 이뤄진 것이라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인다. 그러나 음모론은 이 지점에서 역사는 승리의 역사만 쓰여 지고, 권력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 보여준다. 반면 패배하고, 더럽고, 숨기고 싶어 하는 역사는 은폐하여, 좋은 것만 말하게 하며, 찬란한 역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드러낸다. 따라서 음모론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이면을 들여다볼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흔히 세계사는 승자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라 불린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편 같은 마약으로 이뤄진 역사가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편전쟁을 알고 있다. 1600년대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 그 회사의 주요 목적은 마약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지하경제의 검은돈은 마약이라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콜먼 2001, 127-196). 또한 프랑스혁명은 프랑스의 민중에 의해 일으켰다지만, 그 배후에는 프리메이슨이 있었다는 것이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이 독일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며, 전쟁을 부추겼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북한의 우연적인 공격이 아니라, 5년 전 이미 강대국의 합의에 의해 일으킨 전쟁이었다는 것이 음모론적 시각에서 본 이면의 역사다. 여기서 어느 정도 입증된 것도 있다. 하지만 일방적 교육방식에 젖어 든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역사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방식에서 충격적인 역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이미 역사의 스테레오타입에 길들여져 있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고, 학계에서도 취급하지 않는다. 많은 이유가 있지

만, 첫째,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둘째, 자신이 지금의 역사관과 세계관으로 이론적 정립과 학문적 기반으로 삼은 역사와 철학이 거짓이었다면 그 여파는 복구하기 힘든 정황이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방어적 자세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맑스(Karl Marx)나 토인비(Arnold Toynbee) 같은 사상가가 프리메이슨의 자금을 등에 업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글을 쓰고 대중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르트 레빈(Kurt Lewin)이나 아도르노(Theodor Adorno) 같은 대학자가 타비스톡(The Tavistock Institute of Human Relations)에서 대중의 심리를 조정하고, 의식을 타락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면 누가 그들을 믿겠는가? (콜먼 2001). 한순간에 자신이 믿었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수궁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음모론적 시각이 모든 것을 설명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역사의 이면의 사실에 충격요법을 주는 것이 음모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호프스태터(1966)는 음모론이 사건들을 강력하고 사악한 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달리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음모론은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그 중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준다.

셋째, 음모론은 지구의 카오스 또는 원시 노예제 같은 디스토피아적인 사회현상을 인식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회가 안정된 사회에서는 음모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가 불안하거나, 불만이 가득 차게 되면 음모론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갑자기 몰아닥친 쓰나미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건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IMF 사태 같은 경제적 재난들이다. 이것이 자연재해이든, 인재이든 간에 갑작스러운 재난은 일반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못한 채 가혹한 현실의 쓴잔을 마시게 한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

이며,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고 납득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의 도피처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모론에 투사하게 된다. 음모 이론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도구이자 하나의 생존 방법이다.

다섯째,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에 대한 물음을 음모론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통합적이고 링크되어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대답을 한다. 음모론에서 세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성이 아니다. 반대로 음모론은 아무 연관성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음모를 밝혀내게 된다. 즉 파편화되고 원자화된 사건들을 하나의 그물망 안에 통합하여 서로서로 이어 준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파편화된 세계는 단일화되고 통합된 어떤 하나의 감춰진 사건을 보여주게 된다. 아무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사건과 사건들이 어떠한 매트릭스에 의해 통합되어 움직인다면, 그때부터 세계는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 체계화된다.¹⁰⁾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사의 참모습을 자각하게 한다.

여섯째, 음모론은 일방적 과학 기술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편리하게 보이는 전자화폐의 도입, 전자주민등록증, 감시카메라, 전자 팔찌의 도입 등 이러한 과학기술이 실은 우리를 통제당하고,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해서 생체 인식 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합의로 인해 영국의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방적인 과학 기술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음모론적 시각은 극단적인 사회를 막는 하나의 파수꾼이다.

10) 워쇼스키(Wachowski) 형제의 대작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는 인간의 기억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에 대해 비주열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진실도 거짓도 아닌 시뮬라크르들의 거대한 집합체로서의 매트릭스만이 존재하며, 이미지가 실체를 대체하고 현실을 지배하는 하이퍼 리얼리티의 시대를 보여준다. 매트릭스에 대한 철학적 분석서로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 『철학으로 매트릭스 읽기』가 있으며 『문화 열두 이야기』 7장을 참조 바람.

마지막으로 지배이데올로기에 파묻혀 사는 일반 대중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둔감해지고, 무관심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음모론은 하나의 충격을 가하여 대중을 깨우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사실 그 정보가 거짓된 근거에 의해 유포되었음에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엔 충분하다. 일상 생활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각 정당의 행태들이 있다. 대선이란 자신들의 정당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키고 지지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무지몽매한 낮은 수준의 정치적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거짓말에 대한 진위공방으로 각 정당은 호소하고 있다. 물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판명되어야 하지만, 정작 선거의 본질은 행하지 않고, 국민들은 그러한 눈가림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정치가들의 생각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음모적인 접근은 그냥 지나쳐버릴 하나의 이벤트들에 대해 표상을 넘어서는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음모론은 그 각각에 대해 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V. 음모론의 한계와 문제

1. 비과학적 한계

음모론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칼 포퍼(Karl Popper)는 사회과학의 중심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을 사회 음모론(Conspiracy Theory of Society)이라 명명하여 비판하고 있다. 포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신론의 형태보다 더 원시적인 이 이론은 호메로스의 사회 이론과 유사하다고 하여, 사회 음모론은 신화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회 음모론은 이러한 유신론, 즉 일시적인 기분과 의지로 만물을 다스리는 신들에 대한 믿음을 각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회음모론은 신을 포기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 데서 생겨난다. “누가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가?” 그의 자리는 여러 권력자들과 집단들-즉 사악한 압력 단체들인데, 이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억압과 해악을 꾸몄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다-에 의해 채워진다. 이러한 사회음모론은 광범하게 퍼져있긴 하나, 진실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 이론은 오직 사회 음모론자들이 득세할 경우에만,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과 같은 어떤 것이 된다. 어떤 것도 계획된 그대로 정확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바라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포퍼 2001a, 248). 따라서 이러한 결론적인 사실을 음모론자들의 진실된 것이라 여겨 발생한 것이라 포퍼는 주장한다.

또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은 모두-전쟁과 실업, 빈곤, 결핍과 같은,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일부 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직접적인 음모의 결과이다. 이 견해는 틀림없이 약간 소박한 미신에 속하지만, 아주 널리 유포되고 있다. 그것은 역사주의보다도 오래된 것이다(역사주의는 음모 이론의 한 파생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인 형태의 음모론은 종교적 미신의 세속화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결과이다. 신들의 음모가 트로이 전쟁의 변천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신들에 대한 호메로스의 신앙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호메로스의 올림포스 신들의 자리는 이제 시온주의의 우두머리들, 또는 독점가, 자본가, 제국주의자들로 대체되었다(포퍼 2001a, 187).¹¹⁾ 이렇

11) 여기서 포퍼는 종교적 미신이나 역사주의, 신비주의 같은 과학적으로 반증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음모론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세계를 과학적 합리주의만 관찰해서 올바르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가? 21C에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종교적 미신, 역사주의, 신비주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들을 배제하고 오늘날의 세계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자신의 철학적 관점으로 음모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포퍼가 놓치고 있는 세계상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음모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진정으로 과학적인 것이 합리적인가? 종교적인 것이 더 합리화될 수도 있는 경우이며 이것은 가치와 해석의 차이로 생각된다.

게 포퍼는 사회를 음모론으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음모가 결코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포퍼는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첫째, 음모는 별로 빈번하지는 않으며, 또 사회생활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음모가 없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끊임없이 직면해 온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여전히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나는 음모가 성공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고 주장한다. 음모를 계획할 당시 애초에 목표했던 결과는 얻어지지 않고, 대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포퍼 2001b, 187-188). 사회의 음모론이란 모든 사건들, 언뜻 보면 아무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건들조차도,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라는 주장과 같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적할 것은 다름 아닌 맑스 자신이 이러한 비계획적인 결과가 사회과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결 원숙한 발언으로 맑스는 우리는 모두 사회 체제라는 그물에 걸려 있다고 말한다. 자본가는 악마 같은 음모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몰려 있는 사람이다. 사태의 책임을 프롤레타리아에게 지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가에게 지울 수도 없다. 맑스의 이러한 견해는 버림을 받고, 통속적인 맑스주의의 음모 이론이 거의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략이다. 맑스에서 괴벨스로의 전략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천국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변명은 지옥에 기득권이 있는 악마의 악의이다(포퍼 2001b, 188-189).

포퍼는 특수명제들로부터 일반 명제를 이끌어 내는 귀납화의 원리, 즉 검증 가능성의 원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100마리의 백조가 희다’라는 특수명제를 가지고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일반명제를 이끌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귀납의 원리에 기초하는 검증 가능성은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들에 기초하여 검증하는 것으로 경험적인

진술들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반적 과학적 원리는 경험에 의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반증을 견뎌 냈기 때문이라 본다. 반증 가능성의 원리에서 보면 경험적인 방법인 실험과 관찰에 의해 반증 될 수 없는 것은 과학적인 이론일 수 없다. 이 밑바탕에는 추측과 상상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을 과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반증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명제는 경험적 관찰을 통하여 인구가 늘지 않는 경우를 반증할 수 있음으로 과학적 명제가 될 수 있지만, ‘인구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라는 명제는 원천적으로 반증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명제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음모론도 검증 가능하나, 반증 될 수 없다고 반론한다(서충원 2000).

즉 포퍼는 음모론을 비과학적인 방식이며, 이러한 오류를 사회과학이 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칼 포퍼는 이러한 음모론은 검증은 가능하지만, 과학과 실험에 의해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음모론을 포함한, 헤겔, 맑스주의 같은 역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2. 정치적 악용의 문제

정치적 악용의 문제를 3가지로 짚어보도록 한다.

첫째, 저널리즘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매카시즘이 있다. 매카시즘은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조셉 매카시(Joseph MaCarthy)가 미국 정부 및 의회에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침투하여 체제전복을 노린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1953년과 1954년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이루어졌던 사태를 지칭한다. 매카시 의원이 상원 행정운영위 소속 상설 조사위원회를 이끌며 그 같은 마녀사냥을 주동할 때, 같은 위원회에 소환되어 조사받은 사람만도 500여 명에 달하며, 그 밖에 대학가나 예술계 등에서도 자체 정화 차원에서 광범위한 마녀사냥이 자행되었다(이상기 2004, 141-142). 한편 전자 공론장(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음모론은 공론장의 왜곡에 의해 체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다. 물론 전자 공론장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고시킨 측면도 있지만, 사실적 근거가 빈약한 정보의 동시적 유통과 책임감을 결여한 전자 글쓰기가 화학적으로 결합해 그럴듯한 담론적 논의구조의 외양을 갖추게 되면서 객관적 사실 판단과 건강부회적 해석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되고 만다. 그 부정적 결과가 음모담론의 무차별적 확산이며, 우리 사회의 불 건강성과 한국 시민의 부주체성을 드러내는 일그러진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윤평중 2004).

둘째, 여론형성의 정치적 악용이다. 음모론은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이상기 2004, 139). 구태를 벗지 못한 정치판에서는 더더욱 음모가 난무하고, 정보 수집 끈에 의한 사실 통신이 적지 않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구조에서,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덧붙여지면 음모가 판칠 수밖에 없다. 정보를 장악한 몇몇 핵심 인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중요 정책의 결정 과정을 간헐적으로 새어 나온 정보로 끼워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빈틈 또한 ‘소설 쓰기’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상기 2004, 140).

그래서 음모론은 불충분한 정보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충분한 정보가 표출되는 ‘여론’에서 신뢰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게 된다. 여론, 인터넷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여론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이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형성하며,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것은 사회의 통념화이다. 닐 포스트먼(Neil Postman)은 여론조사를 보이지 않는 기술로서 네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왜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통계학을 사용하는 것일까? 에 대한 물음을 바로 본질적인 악을 ‘과학적 탐구’라는 허울로 감추고 있는 사회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통계학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우둔

하다고 믿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정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로 인해 우리들은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의 두 후보 중 누구에게 표를 던질 예정입니까?’라는 질문이 있다. 그러나 특정한 절차가 믿을 만하다는 것과 이것이 유용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네 가지로 살펴본다.

첫째, 대중에게 제기되는 질문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으레 여론조사원들은 ‘예’ 아니면 ‘아니오’ 응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던진다. 이런 식의 대답이 ‘여론’이라는 이름에 충분히 값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당신이 ‘정부의 프로그램이 마약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하자. 이때 그 누구도 당신의 견해 속에 내재된 관심이나 가치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쓰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통계학적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요컨대, 여론조사에 통계학을 사용하면 ‘여론’의 의미가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텔레비전이 ‘정치토론’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듯이 말이다. 즉 여론이란 검증되지 않은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와 같다.

둘째, 여론조사의 기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부추긴다. 즉 여론은 사람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원의 질문에 의해 쉽게 파악되고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론으로 의견이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식습득, 질문, 토론, 논쟁 등의 활동으로 형성되어가는 장기적인 사고의 과정이다. 질문은 의견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수정하고 변경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의견 형성과정 속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견이 측량 가능하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들의 여론 형성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여론조사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의견 형성과정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린다. 또한, 부르디외는 설문조사에서 우리의 의미가 박탈당하게 되고 설문자, 즉 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고 자기의 위치를 재발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의견 또는 취향을 통해 계급의 위치를 짓게 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권력의 구별 짓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부르디외 1996).

셋째, 여론조사는 설문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하기 일쑤다. 측정과 서열화에 혼을 빼앗기지 않은 문화권이라면 이러한 배제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나타내는 문제가 나란히 제시되었다고 할 때,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예를 들어 보자. 과거 미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72%가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 원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견해를 피력한 사람들 가운데 28%가 니카라과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18%의 사람들은 이것이 뉴질랜드 근처의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7.4%가 ‘아프리카는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니카라과를 나이지리아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피조사자들의 61.8%는 미국이 니카라과에 경제 원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23%는 ‘경제원조’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만일 여론조사원이 이런 식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여론조사의 명성과 위력이 현격히 저하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무지몽매한 의원들이라도 자신의 판단에 더 큰 신뢰를 보였을 것이다.

넷째, 이것이 정치지도자와 유권자 사이의 책임소재를 뒤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다. 의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선거구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원들이 대중의 최고 이익을 밝혀내는 데 있어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나름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는 유권자의 의견에 민감한 정치지도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지닌 지혜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즉 당시의 정치지도

자들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졌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과정이 정교해지고 대규모화되어 가면서,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에 복종하라는 압력이 점차 커져갔다. 아무리 무지하고 근시안적인 견해라 하더라도 말이다(포스트먼 2001, 188-192).

이렇게 포스트먼은 여론조사와 같은 보이지 않는 기술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러한 기술을 사물의 자연적 질서의 일부로 믿게 된 것에 비판한다. 마치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학의 ‘교육과정’이라는 구조가 없으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듯이 말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의 도움이 없다면 정계에서 낙오자가 될 거라고 믿는다. 업무수행 방식이 특정 제도와 깊이 연관되어 어떤 것이 먼저인지-방법인지 제도인지-알지 못하게 되면, 그 제도를 바꾸기도 어렵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대안적 방법을 상상하기도 어렵게 된다(포스트먼 2001, 201-202). 결국 포스트먼은 우리의 테크닉(여론조사)이 어디서 왔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아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정치적 악용의 문제로서 지식인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에 지식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음모, 음모론, 음모설에 대한 지식인들의 지식에 대한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과학적 법칙에 따르지 않는 것은 이론이 될 수 없다는 학문적 명제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이나, 비가시적인 관계, 여러 우연적 사건의 중층된 결과로서의 사건들의 경우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분명 설명되고 해석되기란 어렵다. 다만 왜 음모론이 될 수밖에 없는지 검증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지식인이 학문이란 틀을 벗어나서, 세계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망막에 상이 보이는 것은 그 사건 이면의 관계들이다. 하지만 지식인조차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력과 지식과 자본의 메커니즘으로 이뤄져 있고, 그 그물망을 벗어나서는 ‘학문’이란 이름을 걸고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 위치를 걸고 권력-지식-자본에 맞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론, 권력-지식-자본과 음모

론의 메커니즘이라는 연결고리란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상황에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금기시 되다시피 한 것들이다. 의도한 지적생산물이나 의도하지 않은 지적생산물이나 자본과 권력에 의해 변질되거나 권력을 뒷받침하는 지식으로 변용되어 버린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인 호색적인 유태인 은행가가 공산주의자에게 자금을 대주는 음모¹²⁾는 선천적인 무력감의 표시이며, 망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식인의 이미지도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지식인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사유하지만 육체노동으로 인한 땀을 흘리지는 않는다. 은행가와 지식인, 돌고 도는 순환의 표본인 돈과 정신은 지배에 의해 불구가 된 자들의 이룰 수 없는 소망 상으로써 지배는 자신을 영원화하기 위해 이 소망 상을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2002, 259). 그리고 황우석 사태가 낳은 문제로써, '과학의 문제'는 사회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야 한다는 편협한 지식 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음모론은 기술과학, 미디어, 정치, 경제 등 하나의 전문적 식견으로는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V. 결론

음모론은 개인의 편협한 사고로 사회를 왜곡해서 보는 관점이지만, 음모론이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의식을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특성도 나타났다. 첫째, 음모론은 정치적 이념의 구분을 필요치 않으며, 둘째, 음모론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든 사회현상이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작되고 계획되었다는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며, 셋째, 음모론은 세계사의 이면의 역사를 파헤치는 기능을 하며, 넷째, 음모 이론

12) 1917년 러시아혁명을 말한다.

은 지구의 카오스 또는 원시 노예제 같은 디스토피아적인 사회 현상을 인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다섯째,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에 대한 물음을 음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통합적이고 링크되어있는 사회로 인식하며, 여섯째, 음모 이론은 일방적 과학 기술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배이데올로기에 파묻혀 사는 일반 대중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둔감해지고, 무관심화 되는데, 음모론은 하나의 충격을 가하여 대중을 깨우는 ‘자각된 주체 호명의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음모론은 검증은 가능하지만, 과학과 실험에 의해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과학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음모론은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잘못된 지식으로 사회를 바라보아 자칫 사회와 괴리될 수 있다. 인터넷의 홍수와 언론에 유포된 정보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이 흐려지며, 지배자들의 눈과 입이라는 저널리즘의 문제, 그리고 여론형성과 지식인의 태도가 음모론의 문제점이자 사회현상을 왜곡되게 비추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음모론의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본다.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진실은 결코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만들어지는 사실이라 하였다. 그러나 말과 세계가 서로 어긋나고 모든 의미나 진실은 주어진 상황에서 창작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그것과는 반대로 사물들이 조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진실과 확실성이란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것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특정한 것만 활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력 때문이다(젠킨스 1999, 86). 따라서 진실은 그것을 참인 것으로 만드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다시 말해 이렇게 보면 문제가 보일 것이다. ‘음모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누구를 위한 음모론인가?’라고 대체하여, 음모론에 자신을 투영하지 않고, 음모론과 객관적으로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음모론의 출처를 밝히는 작업과 함께 반증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비판적으로 판별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론장이 잘 작동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엄청난 정보의 홍수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하루하루가 급변하며,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데이터와 다양한 이론에 기대어 설명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과학’적 방식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을 채워 줄 수 있는 프레임이 음모론이라는 렌즈이다. 향후 하나의 대안적 지식으로서의 음모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음모론에 대한 저널리즘의 수준을 넘어서, 음모론의 현상을 하나의 문화적인 해석, 비판적인 이론으로서의 학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덕호·김연진. 2001. 『현대 미국의 사회운동』. 서울 : 비봉출판사.
- 김연명. 1988. “Joan Higgins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제12권, 189-209.
- 김영찬. 2004. “영화로 읽는 근대의 무의식: 공포의 근대와 편집증.” 『문학과학계』 13호, 358-369.
- 닐 포스트먼 저·김균 역. 2001. 『테크노폴리』. 서울 : 민음사.
- 서충원. 2000.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 『국토』 228호, 92-99.
- 슬라보예 지젝 저·김소연·유재희 역. 1995. 『삐딱하게 보기』. 서울 : 시각과 언어.
- 에드워드 W. 사이드 저·전신욱·서봉섭 역. 1996. 『권력과 지성인』. 서울 : 도서출판 썬.
- 윤평중. 2004. “음모담론의 동학과 구조 :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당대비평』 제25권, 119-125.
- 이극찬. 2000. 『정치학』. 서울 : 법문사.
- 이리유카바 최. 1999. 『그림자정부 : 정치편』. 서울 : 해냄.
- 이상기. 2004. “음모론의 나팔수, 언론.” 『당대비평』 제25권, 138-148.
- 이훈진·원호택. 1997. “편집증에 대한 인지 - 동기적 접근 : 개관.” 『심리학의 연구문제』 4호, 323-364.
- 전상진. 2015. 『음모론의 시대』.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정태일. 2017. “한국정치에서 음모론과 선거의 연관성 : ‘장준하 사망’, ‘광주민주화운동’, 천안함 침몰’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1호, 7-30.
- 주정립. 2006.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시민사회와 NGO』제4권 1호, 43-79.
- 존 콜먼 저·이창식 역. 2001. 『음모의 지배계급 300인 위원회』. 서울 : 들녘.
- 짐 마스 저·최수민 역. 2003. 『음모』. 서울 : 창과창.
- 칼 R. 포퍼 저·이한구 역. 2001a. 『추측과 논박 1』. 서울 : 민음사.
- _____. 2001b. 『추측과 논박 2』. 서울 : 민음사.

- 케이스 젠킨스 저·최용찬 역. 199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서울 : 혜안.
- 테오도르 아도르노·막스 호르크하이머 저·김유동 역. 2002. 『계몽의 변증법』. 서울 : 문학과지성사.
- 팻 로버트슨 저·김왕기 역. 1997. 『뉴 월드 오더』. 서울 : 낮은울타리.
- 피에르 부르디외 저·최종철 역. 1996. 『구별짓기(하)』. 서울 : 새물결.
- Peter Knight. 2000. *Conspiracy Culture : From Kennedy to The X Files*. New York : Routledge.
- Richard Hofstadter. 1966. The paranoid style in American politics. In: Hofstadter R (ed.) *The Paranoid Style in American Politics and Other Essays*. New York: Alfred A. Knopf, pp. 3-40.
- 뉴데일리. 2013. “[선제 정밀 타격], 북 위협 막는 최선책..美 NYT 기고 ‘화제’”(4월 15일).
- 연합뉴스. 2003. “인터넷이 음모론 확산 주도.”(8월 4일).
- 프레시안. 2003.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3) : ‘음모’에 대해 말해보자.”(3월 27일).
- 다음 백과사전 <http://www.daum.net/>

투고일 : 2020년 11월 12일 . 심사일 : 2020년 11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9일
--

* 광인신은 동아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박사 논문을 준비 하고 있다. 주요 논문은 “한·일간 독도 문제에 있어서 언론의 성향연구”가 있다. 주로 정치이론, 한국정치, 일본정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관심이 많다.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onspiracy Theory : Basic Analysis

Kwak, Insin
(Dong-A University)

Today, the keyword of Korean politics is definitely the language of conspiracy. In any case, when political issues emerge, the word "conspiracy theory" appears through the media, news, personal broadcasting, and SNS. In addition to "The Conspiracy Theory of the Cheonan Warship," "The Conspiracy Theory of the General Election," and "The Conspiracy Theory of the COVID-19," they also attract public attention with provocative titles such as "The 9/11 Conspiracy Theory." But the moment we put the label "Conspiracy Theory," our society treats patients with irrational, irrational, and paranoid doubts about it. However, there is also a need for academic research to reinterpret how "conspiracy theory" occurs, how it functions politically, and what it means. Conspiracy theory is a view of society distorted by individual narrow-minded thinking, but it analyzed seven positive characteristics that conspiracy theory brings a critical sense of society. On the other hand, conspiracy theories are verifiable, but because there is no rebuttable possibility by science and experiment, there is a limit to conspiracy theories, explained the limitations of conspiracy theories with Karl Popper's discussion. Nevertheless, it is judged that an academic review of conspiracy theory as one alternative knowledge that can interpret an era of unpredictable uncertainty is needed as a more systematic, critical theory.

Keywords : Political Science, Conspiracy, Conspiracy Theory, Paranoia, Karl Popper